

언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안병희 · 임흥빈 · 권재일

1. 머리말

학문의 연구사적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되살피고, 현재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사적 방법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한국의 인문학 연구의 성과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 연구, 구체적으로는 국어 문법 연구를 되돌아 보아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어형태론 연구(제2장)와 국어통사론 연구(제3장)로 나누어,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을 분석·반성한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방향 제시는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토대로 이를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문제가 된 쟁점 연구를 중심으로 반성할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비와 관련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총괄연구과제명은 '한국 인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며, 본 논문은 그 가운데 제1세부과제이다. 연구책임자 안병희는 이 연구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였으며, 공동연구원 권재일은 제2장을, 공동연구원 임흥빈은 제3장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 글의 일부는 1997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강연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권재일: '국어형태론 연구의 회고와 전망'(지정토론자: 송철의 교수), 임흥빈: '통사론 연구의 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지정토론자: 남승호 교수).

심의 초점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어떠한 점을 소홀히 했으며,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왔는가를 반성하는 데에 맞추고자 한다. 문체의 연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시대적인 경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1945년 이전의 업적도 언급하기로 한다.

2. 국어 형태론 연구

2.1. 형태론의 지위와 연구 대상

2.1.1. 형태론의 지위 정립

형태론이 국어학에서 어떻게 정립되었으며, 그동안 국어학 안에서 어떠한 지위로 연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앞으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길이라고 본다.

학문의 이름은 대체로 그 학문의 연구 대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국어형태론은 ‘국어의 형태 현상’이 바로 연구 대상이 된다.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언어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음운론, 의미론, 문법론이 된다. 그리고 문법론은 다시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뉜다.

국어문법론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이라는 두 연구 대상의 구분은 1950년대까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의 대표적인 국어학 저서인 이희승(1955)에서는 형태론과 통사론 구분에 대한 기술이 불분명하다. 이희승(1955)에서는 국어학의 연구 분야를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으로 기술하면서, 어휘론에서 어의론, 어형론을, 문법론에서 품사론을 기술하였다. 이송녕(1961)에서는 음운편, 조어편, 형태편, 통사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태편은 굴곡법에 한정되며, 조어법은 어간의 구조를 연구하는, 문법론 안의 독자적인 분야로 정의하였다.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본격적인 형태론의 연구 대상은 허웅(1963), 안병희(1965가)에 이르러 비로소 정립되었다. 허웅(1963: 169-)에서는 “단어는 하나 또는 둘 더되는 형태소로써 형성되는 것인데, 그 형태소의 결합방법은, 각 언어에 따라서 다른 일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다. 형태소의 뭉뚱이, 그 종류,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문이 형태론이다.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단어의 결합방법에 대한 연구가 통사론이다.”라고 하여, 문법론의 연구 대상

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아울러 형태론과 통사론의 한계를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단어를 최소자립형식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였다. 안병희(1965가: 111-)에서는 형태소나 적어도 단어 이하인 언어형식을 직접구성요소로 하는 구성을 형태론적 구성이라 하고, 단어와 단어 이상을 직접구성요소로 하는 어구와 같은 구성을 통사론적 구성이라 규정하고, 형태론은 형태론적 구성, 통사론은 통사론적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국어형태론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다분히 구조주의 문법, 특히 미국의 기술문법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 다음과 같이 형태론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정밀화되었다.

일정한 음성형식과 일정한 의미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을 언어형식이라 할 때, 최소의 언어형식 단위인 형태소들은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이루는데, 이러한 언어형식이 형태론적 구성이고, 형태소가 모여서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이 형태론적 과정이다. 형태론적 구성은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이루는데, 이러한 언어형식이 통사론적 구성이다. 형태론적 구성이 모여서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이 통사론적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통사론적 구성이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의사전달의 완성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장이다. 통사론적 구성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도 역시 통사론적 과정이다. 즉 형태론적 과정은 형태소가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며, 통사론적 과정은 형태론적 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을, 궁극적으로 통사론적 구성이 문장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형태론과 통사론을 형태론적 과정과 통사론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문장 안에서 형태론적 과정의 여러 현상들(구성방식과 그 제약,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형태론이며, 통사론적 과정의 여러 현상들(구성방식과 그 제약,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통사론이다.

형태론적 과정에 나타나는 결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 어근	(예) 뜯
나. 어근+어근	산-돼지
다. 어근+접사(파생접사)	울-며, 짓-밟-
라. 어근+접사(굴곡접사)	돼지-가, 벼-를, 밟-았-다

이러한 결합방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법은 합성법,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

합하는 방법은 파생법, 어근과 굴곡접사가 결합하는 방법은 굴곡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합성법과 파생법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즉 단어의 어간을 다시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 두 결합방법을 묶어서 조어법으로 정의되었다(허 옹 1963: 183- 및 안병희 1965가:127-). 결국 형태론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2) 형태론의 연구 대상

○ 조어론

- 합성법 어근+어근
- 파생법 어근+파생접사

○ 굴곡론 어근+굴곡접사

국어형태론의 연구는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을 규정한 바탕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국어의 형태 현상들이 정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굴곡론에 대한 연구는 허 옹(1975 및 1995)에서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조어론에 대한 연구는 송철의(1990/1992), 김창섭(1994), 김계곤(1995)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체계화 되었으며, 형태론 전반에 대한 연구는 고영근(1989), 김석득(1991), 김승곤(1996) 등에서 이루어져서, 국어의 형태 연구는 국어학의 다른 어느 연구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다.

2.1.2. 형태론의 위기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어형태론 연구를 되돌아 보면 언어 이론의 전개 과정에 따라 형태론의 지위가 불안정하였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래 언어 이론의 변천에 따라 문법론 안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였으며, 형태론 안에서도 굴곡론과 조어론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음운론과 형태론의 영역, 통사론과 형태론의 관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형태론 연구가 국어학에서 경시되거나 전적으로 배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형태론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기술언어학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형태론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통사론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는 현상 못지 않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분야를 경시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이다. 변형 생성문법의 초기 이론이 형태론을 경시한 예가 그러한데, 국어 문법에서는 형태론의

비중이 높다는 국어의 특징이 무시된 경우이다. 그간 이러한 연구 경향이 있었음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기술문법 이론은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귀납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이다. 그래서 층위적인 연구방법론이 성립되어, 연구 대상을 문법론에만 국한시켜 보면 형태론 연구는 문법 연구의 핵심 분야가 되었지만, 통사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술문법 이론의 수용은 국어의 형태론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연구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국어는 주로 문법형태소에 의해 문장의 문법 현상이 실현되기 때문에, 형태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형태소의 성격, 형태소의 결합 제약, 형태소의 통사 기능 등을 밝혀 문법 현상 전반을 기술하려 한 기술문법 이론은 국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어형태론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확립되고, 마침내 국어형태론의 연구가 꽃을 피우려는 시점에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1970년대 이후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수용을 통해서 국어형태론의 지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미국의 기술문법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기술문법 이론과는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모든 것이 대조적이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목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밝히기 위한 즉, 언어 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형생성문법은 문장구조의 적격성을 설명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그 결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국어문법론은 통사론 연구를 문법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을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으로 삼았다. 형태론을 연구할 이론이 변형생성문법 틀 속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형태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자료에 대한 분석, 기술에 지나지 않고, 통사 현상에 대한 연구만이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형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굴곡 현상인 경우, 이를 통사 현상으로 혼동하여, 형태 현상마저 모두 통사 현상으로 대상을 삼은 연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법형태소의 결합 제약을 연구하는 것조차 통사론 이름 아래 두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어 문법론은 곧 국어통사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형태론의 연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생성형태론이 등장한 후부터 형태론은 주로 조어론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형태론은 문장을 생성하는 통사 규칙의 마지막 단계인 어휘부에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 통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휘형성규칙과 관련한 대상에 국한하고 있다. 기술문법 이론에서의 형태론은 굴곡론과 조어론에 균형을

두어, 주로 형태론적 구성의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생성형태론은 단어의 생성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성형태론에 입각한 형태론은 조어론에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조어론은 단어 생성 과정의 음운 현상에 절대적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관한 임홍빈(1985: 70-)에서의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년대, 특히 그 전반은 국어형태론을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연구에서 형태론이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불확실하여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고 위협하던 시기, 그래서 형태론의 활동무대가 극도로 좁아지고 형태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형태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령 어떤 논의가 ‘그것은 형태론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형태론의 소멸위기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3. 위기의 극복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초기에 확립되었던 형태론의 연구 대상, 곧 형태론에 대한 확고한 지위가, 외래 언어 이론의 수용 양상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형태론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론이 통사론의 일부인 것처럼, 형태론이 조어법의 음운 현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형태론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형태론에서 굴곡론과 조어론이 균형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문법형태소(굴곡접사)의 기능이 문장의 통사 현상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 문법형태소의 형태적 성격을 경시할 수는 없다. 형태론 안에서 굴곡론의 지위는 가치가 있다.

현대 학문의 경향은 이웃하는 분야와 상호 관련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보편화하고 있다. 형태 현상은 음운 현상, 통사 현상과 관련하여, 이른바 상관성에 입각하여 연구되어야 그 참 모습을 밝힐 수 있고, 또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더 나아가서 의미론까지를 함께 묶는 통합 이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형태론의 확고한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이웃하는 음운론, 통사론과 상관성 연구와 통합 이론에 의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국어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착어에 속한다. 명확한 문법적 관념을 가

진 각각의 문법형태소를 계속 첨가하여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이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유형론의 한 관점인 문법범주 실현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국어는 문법범주 실현에 있어서 형태론의 방법이 통사론의 방법보다 비중이 높은 언어에 속한다. 간단히 다음 문장을 예를 들어 보면,

(3) 가. John loved Mary.

나. Did John love Mary?

다.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였다.

라.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였느냐?

영어에 있어서 시제법은 '-ed'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주격, 목적격 등의 격은 문장 구조에 의해(통사론의 방법), 서술법, 의문법 등의 의향법은 역시 문장구조에 의해(통사론의 방법) 실현된다. 국어에 있어서 시제법은 '-었-'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주격, 목적격 등의 격은 '-가', '-를'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서술법, 의문법 등의 의향법은 '-다', '-으냐'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실현된다. 비록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았지만, 영어는 대체로 통사론의 방법에 의해, 국어는 대체로 형태론의 방법에 의해 문법범주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영어와 같은 언어는 문법범주 실현의 측면에서 보면 통사론에 비중이 더 높은 언어이며, 국어와 같은 언어는 형태론에 비중이 더 높은 언어이다.

이와 같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를 확인하여 그 형태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서 이들의 기능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즉 영어와 같은 인도-유럽어와는 다른, 이러한 교착어적인 언어구조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형태론적 구성으로의 결합방법과 거기에 따르는 제약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형태론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2.2. 형태소와 그 분석 한계

2.2.1. 형태소의 개념

어떤 연구든 그 연구는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국어형태론의 연구도 대상의 기본 단위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형태론이 단어를 분석하여 구성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생성과정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형태소를 규정하는 일은 형태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국어의 경우 어간과 어미, 어간과 조사를 분석하려는 인식은 이미 차자표기시대에서부터 나타났다(송철의 1997). 차자표기에서 대체로 어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고(訓借), 어미나 조사 부분은 소리를 빌려 표기하였다(音借). ‘去隱春=간 봄’에서 ‘去’는 동사어간 ‘가’를, ‘隱’은 어미 ‘-ㄴ’을, ‘春’은 명사 ‘봄’을 각각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활용형을 어간과 어미로, 곡용형을 어간과 조사로 분석했음을 보여 준다.

형태론의 기본 단위로서 형태소에 대한 인식은 1950년대 이후 형태론의 지위가 정립되면서 동시에 확립되었다. 허 용(1963), 안병희(1965가)에서 형태소를 규정하고, 형태소의 유형, 변이형태와 실현 조건 등을 명시하였다. 김석득(1962 및 1992), 고영근(1989)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는 형태소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공헌한 바 크다.

형태소의 정의는, 일정한 음성형식과 일정한 의미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 즉 언어 형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언어형식의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형태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 의거하였다. 첫째,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특성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형태소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발화에서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그렇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에 반드시 의존해야만 실현이 가능한 의존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셋째, 형태론적 구성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적인 비중에 따라, 중심 의미를 가지는 어근형태소와 어근형태소를 의미적으로 도와 주는 접사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접사형태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 접사(또는 파생접사)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접사(또는 굴곡접사)로 다시 유형화하였다.

형태론 연구가 단어를 분석하여 구성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생성과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형태소를 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그 유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형태론의 기본 단위를 새롭게 검토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형성소, 구성소, 어소라는 개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고영근 1993).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요소를 형성소, 비생산적인 요소를 구성소, 이를 묶어 어소라 하였다.

2.2.2. 형태소의 분석 한계

국어의 교착어적인 성격과 문법형태소가 역사적인 문법화 과정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태소 분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접속어미의 형태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권재일 1991 참조).

최현배(1937/1971)에서는 접속어미를 의미 관계에 따라 14가지 갈래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접속어미들을 제시하였는데, 형태소 분석과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소 분석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을것같으면, -을지대, -은지라, -을지라도’. 둘째, 형태소의 변이형태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모두 제시하였다. ‘-어서, -아서’. 셋째, 선어말어미를 분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접속어미로 제시하였다. ‘-더니, -노니’.

이와 같은 고전적인 형태 분석을 벗어나서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접속어미를 분석하여 목록화한 것은 고영근(1975)에서이다. 둘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는 모두 분석하나, ‘-느-, -더-, -으리-’ 등은 교착되어 있다고 하여 분석하지 않은 단위를 통합 관계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현대 국어의 구조적 양상을 중시한 분석이라고 밝혔다(고영근 1978). 권재일(1985)에서는 현실 언어에서 존재 가능한 차원에서 형태소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더-’는 분석하되, ‘-거-’는 분석하지 않은 편에 섰다. ‘-더-’는 현대 한국어에서 회상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인식이 가능하여 ‘-던’은 ‘-더-’와 ‘-은’으로, ‘-더니’는 ‘-더-’와 ‘-으니’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건만’은 ‘-거-’와 ‘-은만’으로, ‘-거니’는 ‘-거-’와 ‘-으니’ 등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 ‘-거-’가 형태소로서 독자적인 형태로 인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언어의 표기나 기술이 지나치게 가공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상태(1988)에서는 단순형, 복합형, 머리요소 전용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서, 복합형에는 조사 접미형(-어야 : -어-야), {거, 더}결합형(-거니 : -거-니), {는, 를}추상형 등으로 나누어 조사와, 선어말어미, 관형형 어미 등을 모두 분석해 내고 접속어미의 형태소를 결정하였다. 조건어미를 대상으로 형태 분석의 방향을 제시한 구현정(1989)에서는 문법 기술의 복잡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형태 분석이 필요하고, 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 분석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립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쓰이는 접속어미가

운데 공시적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어미를 단순-조건씨끝(-으면, -거든, -어야, -어도)이라 하고, 여러 개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를 복합-조건씨끝(-다-면, -라-면, -자-면, -으려-면, -느라-면, -더라면, -으면-은 등)이라고 하여, 복합-조건 씨끝은 다른 어미나 다른 조사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재분석하면, 형태소의 목록을 줄여서 문법 기술의 복잡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서로의 관련성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가능한 한 단순 형태소로 분석하려는 논의들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가공적인 형태소로 분석할 위험성을 배제한 방법론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접속어미의 추상적인 분석 방법이 제기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창해(1964)를 바탕으로 한 박기덕(1974)에서의 논의가 그 대표적이다. 박기덕(1974)에서는 연결접사의 형태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K [추정], N [진행], T [경험], M [존재], L [예기], NG [정서적 존재], S [추상], Y/I [지정], C [경험을 통한 회의], P [특정한 존재], A [지속]. 즉 기존의 접속어미를 분석하여 {K}는 [추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K}가 들어있는 접속어미는 추정의 개념을 나타낸다는 것을 통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나’는 {ㄱ}(K), {ㄴ}(N), {아}(A)와 같은 세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며, ‘-거나’의 의미는 [추정된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됨], [선택]이라고 해석하였다. ‘-려고’는 {ㄹ}(L), {ㄱ}(K)와 같은 두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며, 그 의미는 [예기된 상황이나 상태를 추정함],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관된 생각으로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를 연구하면서 접속어미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의는 서태룡(1979)에서 시작된다. ‘-더-, -느-, -거-’와 같은 요소를 선어말어미로 설정하고 모두 분석하며, ‘-은, -을’ 등과 같은 요소도 관형형 어미로 설정하고 모두 분석하였다. 즉 이들을 앞세우는 형태들은 모두 둘 이상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고서 분석하였다. 서태룡(1987)에서는 국어의 활용어미를 단일어미와 복합어미로 나누고, 복합어미는 분석될 수 있는 둘 이상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활용어미라고 하였다. 재분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어미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재분석이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로 인식되는 통합형을 그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그 형태와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재분석을 통해, 통시대와 공시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고, 형태소의 목록을 줄일 수 있고, 형태나 의미의 기술과 설명을 정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분석은 음운

론적인 근거, 형태론적인 근거, 의미론적 근거, 통사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접속어미의 재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으나, -으니, -으며, -으러, -으려고’는 동명사 어미 ‘-은, -음, -을’과 어말어미 ‘-아/어, -어, -고’로 분석한다. 둘째, ‘-다만, -지만, -어도, -어야’는 정동사 어미 ‘-다, -지, -어’와 후치사 ‘-만, -도, -야’로 분석한다. 셋째, ‘-게, -거든, -느라고, -더라도’는 선어말어미 ‘-거-, -느-, -더-’ 등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하여, ‘-으나’는 ‘-은+ -아’로, ‘-으니’는 ‘-은+ -이’로, ‘-다만’은 ‘-다+ -만’으로, ‘-게’는 ‘-거+ -이’로, ‘-거든’은 ‘-거+ -든’으로 재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 분석은 형태소의 목록을 줄이고, 문법과 의미 관계의 설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제기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분석 방법은 의식 세계와는 거리가 먼 가상적인 형태의 설정, 문법과 의미 설명에서의 일관성의 결여, 공시태와 통시태의 혼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극단적이며 추상적인 형태 분석 방법론과, 현대 국어의 공시적인 구조 양상에 바탕을 둔, 의식 세계에서 가능한 형태 분석의 방법론 사이에서, 어떤 방법론이 형태소 확인과 형태 연구에서 더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인지는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는 일이지만, 형태론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즉 ‘-으려고’의 형태 분석을 {-으려고}로 할 것인가, {-을}+{-이}+{-어}+{-고}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2.3. 굴곡론 : 어미와 조사의 성격

문법형태소는 의존형태소인 동시에 굴곡형태소이다. 문법형태소는 선행하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인식해 왔다. 문법형태소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체언의 경우와 둘째 용언의 경우로, 전통적으로 체언에 관여하는 기능이 곡용이며, 용언에 관여하는 기능이 활용이다. 곡용에 관여하는 문법형태소가 곡용접사(또는 곡용어미)인데, 조사로 기술해 왔다. 활용에 관여하는 문법형태소가 활용접사(또는 활용어미)인데, 어미로 기술해 왔다.

이제 굴곡법에 관여하는 어미와 조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그리고 두 범주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3.1. 어미의 성격

어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미의 체계를 세워 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체계를 세우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기준은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에서의 위치였다. 이것은 최현배(1937/1971)에서 설정한 이른바 보조어간의 개념을 극복하려는 것에도 관련을 맺는다.

어미는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인식하였다.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을 끝맺는 위치에 분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끝맺지 않은 위치(혹은, 끝맺는 위치 앞)에 분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허 옹(1975)에서는 이들을 맺음씨끝과 안맺음씨끝이라는 술어로 기술하였다. 학교문법(1985/1991/1996)에서는 이들을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술어는 외국인학자 M. Yokoyama와 S. Martink의 책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고영근 1989: 243-5). 선어말어미라는 술어에 대하여 남기심·고영근(1985: 21)에서 남기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하는 것보다 어근이나 어간 뒤에 오는 것이며, 어말어미는 그 맨 끝자리에 와서 단어를 끝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왜냐 하면 국어는 첨가어이며, 첨가어에서는 언제나 왼쪽의 어근에 접사나 어미가 차례로 붙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기준은 어근이다. 그러나 선어말어미란 말은 어말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 자리에 온다는 뜻이 되어 첨가어의 기본 성질에 어긋나는 표현이 된다. 선어말어미는 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비어말어미(非語末語尾), 또는 비종결어미(非終結語尾)와 같은 명칭이 국어의 첨가적 성질에 더 부합할 것 같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 고영근 교수는 고영근(1989: 243-5)에서 “남 교수의 견해는 구조적 상관성을 생각하지 않은 매우 평면적인 관찰의 소산이며, 어미구조체를 기능에 따라 나눈다면 선어말어미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서정목(1987)에서는 이들을 문말어미(文末語尾), 선문말어미(先文末語尾)라 하였는데, 이는 어미의 통사 기능을 부각한 것으로 본다. 최근의 변형생성문법 기술에서는 INFL을 선어말어미, COMP를 어말어미에 대응하고 있다.

2.3.2. 조사의 성격

조사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조사의 주된 통사 기능은 격의 실현이다. 명사는 홀로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조사가 결합하여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한다. 명사에 결합해서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게 하

는 조사가 격조사이다. 격이란 문장성분들이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이다. 결국 격 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명사에 부여하는 조사이다.

그런데 조사는 모두 격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다. 조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장성분에 결합할 수 있어서 일정한 문장성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이 결합한 구성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것이 있다. ‘-도’, ‘-는’, ‘-만’ 등이 그러하다. ‘-도’가 결합함으로써 [역시]라는 의미를 실현한다. 이와 같이 특정 의미를 한정해 주는 조사를 보조조사라 한다. 이승녕(1961) 등에서는 격어미(즉, 격조사)도 아니고 어간형성 접미사도 아닌 ‘-부터, -조차’ 등을 따로 독립시켜 후치사로 설정한 바 있다. 후치사는 알타이제어 문법에서 흔히 설정하는 품사인데, 국어에 대해서는 이미 Ramstedt(1933 및 1939)에서 설정된 바 있었다. 이외에도 명사와 명사를 잇는 기능을 가지는 조사는 접속조사(혹은 연결조사)로 규정되었으며, 또 종결된 문장 뒤에 결합하는 조사, 예를 들어 청자높임의 기능을 가지는 ‘-요’, 인용절을 이끄는 ‘-고’, 그리고 ‘-마는’, ‘-그러’ 등은 문장종결 특수조사로 규정된 바 있다(권재일 1985).

대체로 격조사는 문법 관념을, 보조조사는 어휘 관념을 실현하지만, 격조사의 경우에 반드시 격의 기능인 문법 관념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관념을 실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을’은 목적격을 실현하는 격조사이지만, [강조], [주의집중] 등과 같은 어휘 관념도 실현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모든 조사는 문법 관념과 어휘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다만 문법 관념의 비중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권재일 1989). 주격조사 ‘-이/가’는, 주격 기능인 문법 관념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고, 보조조사들은 어휘 관념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어서, 각 관념의 양 끝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격조사들은 이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어 조사에서 문법 관념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격>목적격>관형격>부사격(위치격>방편격>비교격)’. 한편 조사 생략의 정도는 대체로 문법 관념의 정도에 비례한다. 문법 관념의 비중이 높을수록 생략이 자유롭다. 이남순(1988)에서도 부정격으로 실현되거나 격표지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화제)>주격>대격>처격>조격>공동격’으로 설정한 바 있다.

2.3.3. 조사와 어미의 관계

다음으로는 굴곡법에 관여하는 어미와 조사라는 두 범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

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사와 어미의 품사적 지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었다. 첫째, 둘 다 독립된 품사로 보는 견해. 둘째, 둘 다 품사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셋째, 조사는 독립된 품사로, 어미는 용언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보는 견해.

국어 문법 연구의 초창기에 주시경 선생의 어간과 어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품사 분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주시경 선생이 「말의 소리」(1914)에서 제시한 국어의 품사는 ‘임, 엇, 움, 겻, 잇, 굿’이다. 그런데 이중 ‘임, 엇, 움’을 묶어서 몸씨, ‘겻, 잇, 굿’을 묶어서 토라 하였다. 여기서 토는 어미와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분류의 특징은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도 품사의 자격을 부여했으며,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품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을 직능, 형식, 의미로 제시하고서, 조사와 어미를 명확히 구별하여, 조사에만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어미에 대하여는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열모(1946), 이송녕(1961)에서는 어미는 물론이고 조사까지도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를 품사에서 제외시켰다.

허 용(1975)에서는 어미를 순수한 굴곡법으로, 조사를 준굴곡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최현배(1937/1971)의 인식과 같이, 어미와 조사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다. 조사는 독립성이 강한 체언에 결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자립성이 약하지만, 한 단어로 보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어미는 그 자체가 자립성이 없는데다가, 자립성이 약한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서로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용언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어미를 순수한 굴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형태론적 구성은 하나의 단어인데 비하여, 조사는 형태론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준굴곡법인 것이다. 조사는 선행요소인 체언이 조사 없이도 자립하여 문장에 실현된다는 점과 보조조사의 경우는 어휘 관념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는 달리 독립된 품사로 설정한 것이다. 학교문법(교육부 1985/1991/1996)의 기술도 이와 같다.

그러나 최근 어미와 조사의 상호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고영근(1993), 서정수(1994)로 대표된다. 명사나 동사에 붙는 형태부를 토라는 범주에 묶되, 이를 다시 기능별로 나누어 고유한 기능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주시경의 ‘토’ 개념을 받아들여,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국어의 교착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문법 모형과 같다. 체언에 대해서도 용언처럼 어간을 인정하여야 하고, 조사에 대해서도 어미와 같

은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을 몸, 체언이나 용언의 문법형태소는 토 또는 발로 기술하여 조사와 어미를 동일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국어형태론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4. 조어론 : 합성법과 파생법의 성격

2.4.1. 단어의 구성

조어법의 두 구성방법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법과 어근과 접사(파생접사)가 결합하는 파생법이다(허 응 1963 및 안병희 1965가). 단어의 구성을 한 형태소로 구성된 단순어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로 체계화할 때, 복합어는 합성법에 의한 합성어와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로 나뉜다.

그러나 이희승(1955: 249-)에서 단어의 구성을 단일어와 합성어로, 합성어를 복합어와 파생어로 분류한 이래, 복합어와 합성어 사이에 술어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단어를 단순어와 복합어,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체계화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서 훨씬 더 일관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때 ‘그 관계가 1:1의 관계인가, 1:n($n \geq 2$)의 관계인가’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관계가 1:1의 관계일 때가 ‘단순 관계’ 1:n($n \geq 2$)의 관계일 때가 ‘복합 관계’이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 ‘문장:서술기능’이 1:1의 관계일 때를 단순문(simple sentence), ‘문장:서술기능’이 1:n($n \geq 2$)의 관계일 때를 복합문(complex sentence)이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서라면 모든 문법 기술에서 그 관계가 1:1일 때는 ‘단순-’이라는 술어를, 1:n($n \geq 2$)일 때는 ‘복합-’이라는 술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어 의미를 체계화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하나의 시니피에가 하나의 시니피앙과 관계를 맺을 때, 즉 1:1의 관계일 때를 단순의미어, 하나의 시니피에가 둘 이상의 시니피앙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하나의 시니피앙이 둘 이상의 시니피에와 관계를 맺을 때, 즉 1:n($n \geq 2$)의 관계일 때를 복합의미어로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구성을 체계화할 때에도 ‘단어:형태소의 수’의 관계에 따라 1:1이면 단순어, 1:n($n \geq 2$)이면 복합어로 체계화하면, 일관된 문법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단어의 체계

○ 단순어 어근

○ 복합어

- 합성어 어근+어근
- 파생어 어근+파생접사

기술문법에서의 조어론이 단어의 구조 분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형태론, 즉 생성형태론은 단어의 생성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음운, 통사, 의미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생성과정을 규칙이나 원리로 설명해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2. 파생법의 성격

국어형태론에서 파생어 형성과 관련한 주된 논의 대상은 파생접사의 목록 확인을 비롯한 파생어 형성 규칙과 그 제약 현상, 특히 파생접사의 어근 선택 제약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생성형태론의 영향을 받은 연구는 송철의(1977)에서 파생접사의 어근 선택 제약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김창섭(1984), 조남호(1988) 하치근(1987/1989), 김지홍(1986), 송철의(1990/1992), 시정곤(1993/1994), 이재인(1994) 등이 그러하다. 송철의(1990/1992)는 파생어 형성 규칙을 기술함에 있어 각 접미사가 결합되는 어근에 대한 음운론적·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제약을 밝힘으로써 국어의 파생어 형성 규칙들을 정밀화해 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파생접사로 여겨져 온 ‘-답-’에는 통사론적 구성인 명사구에 결합하여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답-’과 순수히 형용사 파생의 기능을 하는 ‘-답-’을 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는데(김창섭 1984), 이는 파생어 형성을 단어 차원에서 문장 차원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로, 통사적 파생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의는 접사 형태소를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로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어휘부에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접사가 어휘적 접사, 통사부에서 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형성하는 접사가 통사적 접사인데, 일부 파생접사와 굴곡접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시정곤 1994).

파생어 형성과 관련하여, 공시성이 있는 파생어와 그렇지 못한 파생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생어의 통사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 영-접사파생에 대한 관심 등은 파생어 연구를 더욱 정밀화하는 데에 기여한 한편,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2.4.3. 합성법의 성격

합성어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와 합성어의 구별 기준을 확립하려는 논의가 계속 되는 가운데, 합성어의 형성 과정을 밝혀 합성어 형성 규칙을 찾아 보려는 연구가 이어졌다.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해돋이, 출렁기, 고기잡이’와 같은 합성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들은 두 요소 사이에 사이시옷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없고, 둘째 요소인 ‘돋이, 넘기, 잡이’가 자립적인 파생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밭갈음, 기차놀이’와 같은 합성명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결국 문제는 ‘해돋이’가 [[해+돋]+이]로 분석할 것인가 [해+[돋+이]]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김창섭 1983, 연재훈 1986, 시정근 1993/1994).

합성동사와 관련하여 ‘어간-어+어간’ 구성의 합성동사와 ‘명사+하다’ 구성의 합성동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판별기준, 형성 원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하다’의 성격 규정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반복합성어와 관련하여 주로 이들의 구성방법과 유형, 음상교체 등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이익섭 1982, 채 완 1986). 그래서 반복합성어의 형성 규칙을 밝히고, 음상교체 양상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어순과 반복의 의미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2.5. 형태론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국어형태론 연구에 대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어형태론의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국어형태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문법의 연구 대상, 국어형태론과 국어통사론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를 경시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사론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형태론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어 문법의 연구 영역의 균형뿐만 아니라, 형태론 내부의 연구 분야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조어론에 치우친 연구를 극복하여 굴곡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특정 주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형태론의 모든 분야를 빠짐 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데에 힘쓰며, 연구사적인 검토를 통해 학문 체계 전반을 늘 조망하는 연구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형태론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앞 시대에 이룩한 학문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문 연구의 성과란 아무런 바탕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선 연구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 이를 계승하고, 수정·보완해서 완성되어 발전해 간다. 그래서 앞서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검토하고 이어받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연구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시경 선생 이후 잘 가꾸어진 국어형태론의 수준 높은 줄기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있었음은 극복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 주시경의 ‘늦씨’나 한글맞춤법에서의 ‘원형’(주시경의 용어로는 ‘원태’), 그리고 한글맞춤법에서 공시대와 통시대를 구별하려 했던 인식들은 좀더 발전시켰더라면 훌륭한 이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송철의 1997).

둘째, 지금까지의 언어학이 경험주의를 지양하고 이성주의에 입각했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어 형태 현상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관찰하고, 관찰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기술하려는 연구 자세가 소홀했던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이래, 경험주의 연구관과 이성주의 연구관은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둘은 순환하거나 어느 한 가지를 지양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경험주의적 접근도 존중되어야 하며, 언어 능력을 해명하려는 이성주의적 접근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연구는 언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일에 기여하며, 새로운 이론은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형태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한 파생어사전, 합성어사전을 편찬하는 일도 매우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개별어의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일반 언어 이론은 가공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가 연구 분야를 세분화하여 자율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을 추구하였다면, 이를 통합하는 이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형태론과 통사론은 독자적인 지위를 확립한 바탕에서, 형태론